

02-2655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충북지부 학생위원회 3·4월 세부 계획서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충북지부 학생위원회

## 2. 分 析

### 1) 개요

0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충북지부 학생위원회”에서 발행된 7쪽 분량의 3·4월 사업 계획서 임.

### 2) 내용 분석

(1) 2002년을 한국사회의 권력재편기로 규정하면서, 당원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놓고 목적 의식적으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사업기조로 내세우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기틀마련을 선동하고 있음.

#### < 예문 >

-사업기조 “당원확대 배가를 모든 사업의 중심으로 놓고 목적 의식적으로 일관된 계획과 흐름을 수립해 과감하고 발빠르게 실천하여 온 대학을 뒤흔들자!”. (1쪽)

(2) 3·4월 사업목표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정치의 희망과 대안임을 널리 의식화해 나갈 것과 학생위원회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lt; 예문 &gt;

-1.개강과 함께 대학 내에 민주노동당이 진보정치의 희망과 내안임을 널리 선전 의식화한다. 2. 대대적인 대중단체 새내기모집사업과 당원가입사업을 힘있게 진행 해 학생당원 70명을 조직화한다. 3. 당원의 교양과 조직체계 정비로 학생위원회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다. (1-2쪽)

(3) 평양 아리랑 축전 준비사업을 반전평화운동, 자주통일 투쟁으로 규정하고 이북 바로 알기, 국가보안법 철폐, 반통일 세력 척결, 공기업 민영화 저지, 미국상품불 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음.

## &lt; 예문 &gt;

-민주노동당이 걸어온 길, 우리가 말하는 진보정치란?...공기업민영화 저지, 미국상품불매 운동...선전공간을 마련한다. (4쪽)

-아리랑 축전 관람단 모집 사업...아리랑 축전 준비사업은 단순히 관광사업이 아니라 반전평화운동이자 자주통일 투쟁이다...사업방향...이북 바로 알기 운동-국가보안법 철폐 운동-반통일 세력 척결 운동. (7쪽)

###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이 참신한 정치대안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원확대 사업을 중심에 놓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3·4월 사업목표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정치의 희망과 대안임을 널리 선전의 식화하고, 학생위원회 건설 등을 제시하는 한편 아리랑 축전 준비사업을 반전평화 운동, 자주통일 투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공기업 민영화 저지, 반통일 세력 척결 투쟁 등을 촉구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나, 문건의 표출된 내용만으로 좌익, 용공성향의 문건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 제시가 미흡한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판단된다. < 끝 >.

2002 年 4 月 29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2654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충북지부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활동 계획서  
(초안)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충북대 학생위원회 준비모임

## 2. 分 析

## 1) 개요

0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충북대 학생위원회 준비모임” 명의로 발행된 9쪽 분량의 유인물로서,

## 0 전반적인 내용이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역할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건설 원칙,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정치의 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2) 내용 분석

(1) 공산주의자들의 주의, 주장에 입각하여 현 정치를 썩은 정치 운운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최종목표가 현 정권 타도 및 민중이 주인 되는 진보정치 실현,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을 건설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음.

## &lt; 예문 &gt;

-지금의 썩어 빠진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그래서 우리 사회를 평등, 통이, 해방의 세상으로 바꾸나

가고 자신의 참된 삶에 대하여 고민하는 진정한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결심으로 학생위원회 건설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1쪽)

-민주노동당의 최종목표는 일하는 사람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집권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일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서럽게 하는 일체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일상시기 때도 투쟁하는 정당입니다. (5쪽)

-민주노동당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 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7쪽)

(2) 민주노동당의 정치대안으로 노동자, 민중을 중심으로 한 민중권력 창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제시하고 있음.

#### < 예문 >

-민주노동당의 정치대안은...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정치권력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비민주적인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8쪽)

(3) 미국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방선동하면서, 한미군사조약과 행정협정 폐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 선전선동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 예문 >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하고...한미 군사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9쪽)

###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방선동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최종목표가 현 정치권력 타도,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 민중권력 쟁취,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 투쟁 등을 촉구하고 있는 바,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의, 주장에 입각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선전선동 하고 있는 좌익성향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건으로 분류된다. < 끝 >.

2002 年 4 月 29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2652

## 鑑 定 書

##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중앙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1차 시지부 학생위원 안건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 2. 分 析

## 가. 文 件 概 要

- 1)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kdnp.org>)의 게시판에 실린 글로 민주노동당 중앙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1차 시도지부 학생위원 안건과 민주노동당 강령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건설, 사적 소유권 제한 및 생산수단의 사회화,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을 통한 새로운 해방공동체 구현, 민중권력 구축 및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 총 5쪽 분량의 내용임.

## 나. 細 部 內 容

- 1)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2쪽).  
 2) 사적 소유권 제한 및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고 있음(2쪽).  
 3)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 극복 및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을 통한 새로운 해방공동체 구현을 주장하고 있음(2쪽).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중  
략.....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4) 민주노동당에 의한 민중권력 구축 및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  
장하고 있음(2-3쪽).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중략.....아  
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3쪽)

5)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의 전진을 주장하고 있음(4  
쪽).

### 3. 總 評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에 의한 민중권력 구축 및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강령에서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건설, 사적 소유권 제한 및 생산수단의 사회화, 그리고 자본주의체제를 넘어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을 통한 새로운 해방공동체 구현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용공성향의 내용임.

2002 年 4 月 30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2470

## 鑑 定 書

## 1. 對 象

- 가. 文 件 名 : “ 오시라 평양으로!! ”
-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충북지부 학생위원회(건)
- 다. 發 行 處(日) : 상동 ( 2002 )

## 2. 分 析

## 가. 概 觀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건)에서 발행한 유인물로서, 남한에는 군사권도, 정치권도, 경제권도 미국 제국주의에게 다 넘어가고 없으므로 민족의 자주권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리랑 공연을 걸작품이라고 찬양하며, 아리랑 축전은 동방조선이 어떻게 파란 많은 수난의 역사를 거쳐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었는지를 예술적 장면들로 펼쳐 보여 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 나. 問題內容 分析

1) 남한에는 군사권도, 정치권도, 경제권도 미국 제국주의에게 다 넘어가고 없으므로, 민족의 자주권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군사권도 한반도 이남, 우리에게서 없다. 정치권도 미국의 입김에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권도 쌀 수입개방,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미제국주의에 넘어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라고는,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세우고 우리의 요구를 내세울 만한 곳은 한반도 이남, 우리에게서 없다.”(1면 중단 기사)

2) 아리랑 공연을 찬양하며, 아리랑 축전은 동방조선이 어떻게 파란 많은 수난의 역사를 거쳐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었는지를 예술적 장면들로 펼쳐 보여 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운명의 주인 운운한 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인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같은 맥락이다.

“아리랑 ... 예술공연 ... 민족의 ... 흥취가 있는 걸작 ... 동방조선이 어떻게 파란 많은 수난의 역사를 거쳐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었으며, 오늘은 어떻게 존엄있는 민족으로 출현하게 되었는가를 ... 서사적으로 펼쳐보이려고 한다.”(1년 상단 기사)

###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한에는 군사권도, 정치권도, 경제권도 미국 제국주의에게 다 넘어가고 없으므로, 민족의 자주권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2) 아리랑 공연을 찬양하며, 아리랑 축전은 동방조선이 어떻게 파란 많은 수난의 역사를 거쳐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었는지를 예술적 장면들로 펼쳐 보여 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운명의 주인 운운한 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인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같은 맥락이다.

본 문건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남한의 미제의 식민지로 평가하고, 주체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 운운하고 있으며, 북한 공연을 찬양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북한 노선을 수용하고, 그것에 동조, 선전, 찬양하고 있으므로, ‘容共’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4 月 26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022346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서울대학생위원회(준)(2002.3)

## 2. 分 析

가) 문건의 개요: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의 기관지,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창간호임.

나) 내용 분석:

(1) 본 기관지는 정치적 내용, 조직적 내용, 이론적 내용, 서울대 학위(준) 소식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기관지에서 정치적 내용은 3월 교육정세에 대한 전망과 투쟁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그 논의의 초점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와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투쟁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2) NO 3-2, <학습제언>의 내용은 맑스주의 당 이론 학습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먼저 이 부분에서는 '당'이 "계급투쟁의 강력한 무기"이자 "계급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마르크스의 당 이론을 기본적 원칙으로 삼고,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 그람시 등 사회주의혁명가들의 당 이론 학습을 독려하고 있음.

<예시>

"과학적 사회주의가 맑스로부터 시작했듯이, 당 이론 역시 기본적인 원칙들은

맑스가 세워 놓았다. 계급투쟁과 계급에 있어서, 당은 계급투쟁의 강력한 무기이자 계급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20면)

(3) 구체적으로, 위 내용에서는 레닌의 대표적 저서인 『무엇을 할 것인가』의 학습을 독려하고 있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은 혁명조직의 중요성과 대중운동에 대한 전위당의 역할을 강조한 공산당 조직론의 고전임.

<예시>

“특히 레닌의 당 이론의 핵심을 풍부하게 이해하려면 직접 『무엇을 할 것인가』 전체를 꼭 읽어보길 권한다”(20면)

(4) 또한 이 부분에서는 그람시의 당 이론 학습을 독려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광역화된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변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해 내기 위한 것임. 즉, 여기에서의 그람시 당 이론 학습 취지는 혁명가로서의 그람시의 당 이론 학습을 통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진보적 대중정당’을 통한 변혁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예시>

“그람시의 당 이론은 이런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지배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형성하고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전고하게 틀어쥐고 있는 것을 분석해 내고 변혁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전략을 전개해 낸다...특히 새로운 유형의 당으로서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은...진보적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획득해야 할 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20면)

### 3. 總 評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의 기관지,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창간호임.

본 기관지에 실린 <학습제언>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가들로서, 당 이론에 관한 고전적 논의들을 제공한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그람시 등의 당 이론 학습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용공적 문건으로 판단됨.

2002年 4 月 17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인구관

(印)

02-2338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교육강령 자료집」

나. 作 成 者 : 불 명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2002. 3. 20)

## 2. 分 析

##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교육문제에 대한 강령을 제시하고 이를 해설하고 있는 것임. 대체로 우리사회의 학력주의와 대학의 서열화 등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입각한 주장을 펴고 있음.

##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우선 서두에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피력하는 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에 의한 사회적 통제를 중시 여긴다. 그 사회적 통제의 방향은 시장경제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이윤추구의 공간을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인간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육문제의 본질은 공교육의 부실속에서 철저한 대학 서열화를 중심으로 빚어지는 과도한 입시경쟁, 여기서 승리하기 위한 물량 투입- 사교육비-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교육에 대한 공적 의무를 소홀히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은 계속 반대로만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5-6면), 전체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자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서있음을 감지케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이념적 맥락에서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키는 어렵다고 판단됨.

(2) 또한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초중등 교육의 시장화 전략'과 국립대 사립화, 등록금 인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편으로 "분명 계급적 관점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총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당운동을 해야하는 우리 당원들은 계급적 관점을 분명히하고 교육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12면), 그 대안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에 대해 현재 가장 급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재정확대! 무상교육의 실현일 것이다. 이를 뼈대로 시장화 전략에 대한 대립전선을 분명히하고 현 시기 교육투쟁을 사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13면), 전체적으로 계급적 민중적 관점을 강조하나 대안으로 무상화 교육을 주된 요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구체적인 좌익성이나 이적성을 지적하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교육문제에 대한 강령을 제시하고 이를 해설하고 있는 것임. 대체로 우리사회의 학력주의와 대학의 서열화 등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 무상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본 문건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키는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됨.

<이하 여백>

2002 年 4 月 17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2197

## 鑑 定 書

##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나. 作 成 者 : 권영길 (발행인)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 2002 )

## 2. 分 析

## 가. 概 觀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의 당보로서, 현 정부의 정책을 왜곡·비방하고 발전노조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승리하여 현 정부를 물러서게 하자고 선동하고 있으며, 전력산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현 대통령은 "적자 때문에 민영화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전력사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 나. 問 題 內 容 分 析

- 1) 현 정부의 정책을 왜곡·비방하고, 발전노조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승리하여 현 정부를 물러서게 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이번 파업(발전노조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승리한다면 지난 4년간 모든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시킨 반면 사장·정치인·고위관료들의 재산이 늘어나도록 온당치 못한 정책을 편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습니다."(2면 상단 기사)

2) 전력산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현 대통령은 “적자 때문에 민영화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전력사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력산업은...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전사업 적자 때문에 민영화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이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기업을 민영화해야 합니까.”(1면 하단기사)

###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현 정부의 정책을 왜곡·비방하고, 발전노조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승리하여 현 정부를 물러서게 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 2) 전력산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현 대통령은 “적자 때문에 민영화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전력사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본 문건에서는 현 정부의 발전사업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고, 현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현 대통령을 비방하고 있으므로, 본 문건은 ‘反政府’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4 月 11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2191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2차 정기대의원대회"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성북구 갑지구당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성북구 갑지구당(2002.01.27.)

## 2. 分 析

## 가. 성격

이 문건은 2002년 1월 27일 오후 3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에서 개최된 민주노동당 성북구 갑지구당(위원장: 김준수)의 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용한 총 21쪽의 회의자료집임.

## 나. 내용 분석

● 이 문건은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의 건설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투쟁노선에 따라 노동자·민중정치세력화투쟁, 반신자유주의·반정권투쟁, 노동자·민중생존권투쟁, 반보수·반자본투쟁, 지방선거·대선투쟁 등을 주장하고 있음.

0. "... 동지 여러분! 을 한해는 우리 당에 있어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동자, 민중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냐는 바로 87년부터 이어온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 결절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빠진 보수정치권에 맞서서 노동자, 민중의 대의를 정치적으로 형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북지역 민중들을 만나고, 그들 속에서 진보정치의 싹을 돋아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가진 것이라고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과 2만에 달하는 우리 당원들뿐입니다....우리가 오늘 모여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찬연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각인합시다...."<p.3.>

0. "... 제2조 (목적) 우리 지구당은 민족자주 · 민주주의 ·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제3조 (사업) 우리 지구당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② 노동자 민중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p.7.>

0. "... 2002년 지방선거는 대선을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해 가는 첩경이다. 2002 지방선거는 주민에게 당을 선전하고,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민중생존권 파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한나당의 보수적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여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확인시키는 장이다..." <p.14.>

0. "...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한 이 땅 민중의 열망을 모아 민주노동당의 깃발을 힘차게 올린 지 2년. 우리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현장에서, 총선투쟁 현장에서 노동자, 민중과 함께 힘차게 싸워 왔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패방지법, 이자제한법 등 민중의 이해에 입각한 정책을 개발, 실현하고자 한 걸음씩 전진해왔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무기, 민주노동당!... 지역에서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더 많은 민중들을 민주노동당이라는 그릇으로 담아내기 위한 시간이었고 나아가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었다. ... 민중 탄압, 민생 파탄의 오늘인 2002년. 우리는 또 다시 노동자,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투쟁의 거리로, 선거투쟁의 공간으로!... 우리는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성북지역에 진보정치 실현의 거점을 확보하고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며 이 성과를 모아 대선투쟁을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희망으로 떠올라야 한다. 노동의 정치, 민중의 정치를 현실의 희망으로 부활시키고 보수정치를 갈아엎어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정치를 위하여 민주노동당 성북갑 지구당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적극 옹호할 것이며, 반 신자유주의, 반 보수정치의 깃발 아래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노동자 중심의 정당 건설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부터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대안 세력으로 우뚝 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지방선거와 대선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p.20.>

<이하여백>

02-2864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창당선언문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구미시 지구당당원일동

다. 發 行 處(日) : 상동.2002. 2.27

##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민주노동당구미시지구당 창당 선언문으로,
2. 현재 우리의 삶이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농민들은 농가 부채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으며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3. 나아가 민주노동당구미시지구당은 '민중이 주체가 되고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장악되지 않는 평등사회'를 위한 이른바 진보정당 건설을 역설하고 있음.
4. 이는 결국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인 진보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유인물이라 하겠음.

##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진보정당 창당 선언문이나 좌익 용공성 문건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반정부 성향의 유인물로 사료된다.

2002 年 5 月 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2915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구미시 지구당 규약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구미시지구당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2. 4.2

##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민주노동당 구미시 지구당 규약집으로,
2. 단체의 목적을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정당이며,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 받고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당의 주인이며 구미시 지구당은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또한 지구당은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 실현과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3. 나아가 사업의 내용 중에는 ‘당원확대 등 조직사업, 진보정치실현을 위한 정치사업,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현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움.

##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 규약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 언급이 없어 문제삼기는 어려운 문건으로 사료된다.

2002 年 5 月 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2916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구미시 지구당 200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기 위한 집행대책

나. 作 成 者 : 미상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2. 4 .2

## 2. 分 析

## 가. 개 요

본 문건은 미국과 현정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방하는 내용과 민주노동당 구미시 지구당의 조직사업, 정치활동, 선거활동, 연대사업 계획을 담고 있음.

## 나. 주요 내용

○ 미국 부시정권이 “확전과 공안정국을 선동하고 있다”는 등으로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예문 : “부시정권은 ... 테러리즘을 심필한다는 명분아래 ... ”.(1쪽)

○ 한나라당, 조선일보는 남북분열을 고착시키는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현 정부는 미국에 굴종하고 친미성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예문 : “현재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남북분열을 고착화시키는 법제화를 밀어 부치고 있으며 ... 김대중정부는 미국에 굴종하고 ... ”.(1쪽)

○ 공기업 민영화는 해외에 경제예속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정부의 민영화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예문 : “공기업 사유화는 ...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에 해외에 팔아 넘겨 경제의 예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1쪽)

○ 민주노동당 구미시 지구당의 사업 목표, 기조, 주요 과제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예문 : "1. 사업 목표와 기조 ..... 2. 주요 과제별 사업계획 ... ".(4-5쪽)

### 3. 總 評

본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확전과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현정부는 "미국에 굴종하고 친미성향을 강화하고 있다"는 등의 비방 내용과 민주노동당 구미시 지구당의 사업 목표와 기조 및 주요 과제별 사업 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본 문건은 반정부적 성향의 표현물로 판단됨. 끝.

2002 年 5 月 8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3040

## 鑑 定 書

##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제주도지부 · 제주지구당 출범결의문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제주도지부 · 제주지구당 창당대회 참가자 일동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2. 4. 27)

## 2. 分 析

## 가. 개요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제주도지부 · 제주지구당 출범결의문으로써 현정부의 경제 및 농정 관련 정책을 분쇄하는 투쟁과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나. 문제내용

- 현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을 비난하고 분쇄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 구조조정 정책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은 갈수록 파탄지경에 빠지고 있다”.(1쪽)  
 “우리의 결의 - 우리는 공기업민영화, 개방농정, 강제철거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동시에 ... 위해 적극 투쟁 할 것을 결의 한다”.(1쪽)
- 미국 부시정권은 민족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미국 부시정권의 군사주의와 패권주의는 한반도에 전쟁의 분위기를 몰고가 민족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1쪽)

## 3. 總 評

본 문건은 현정부와 미국을 비난하고 현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및 개방농정 정책 분쇄 투쟁을 등을 결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따라서 반정부적 성향의 표현물 임. 끝.

2002 年 5 月 21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3494

## 鑑 定 書

##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금천(광명)지구당 강령·규약
-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 2. 分 析

## 가. 文件概要

- 1)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금천(광명)지구당 강령·규약으로, 총칙, 의결기관, 집행기관, 분회, 그리고 부칙 등으로 구성된 총 4쪽 분량의 내용임.

## 나. 細部內容

- 1) 총칙에서 금천(광명)지구당의 목적으로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1쪽).
- 2)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1쪽).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은.....중략.....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 실현을 주장하고 있음(1쪽).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중략.....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 4) 이 외 의결기관, 집행기관, 분회, 그리고 부칙 등과 관련한 회칙을 규정하고 있음(1-4쪽).

### 3. 總 評

본 문건은 총칙에서 금천(광명)지구당의 강령으로 목적에서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 실현, 남녀평등 실현, 그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민중 투쟁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없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현재 민주노동당이 의회 선거를 인정하고 참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반정부적 성향의 선거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임.

2002 年 5 月 2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3879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춘천지구당 창당대회 창당대회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춘천지구당 준비위원회

다. 發 行 處(日) : 상동(발행일: 미상)

## 2. 分 析

## 가. 概 要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춘천지구당 창당대회 관련 문건으로써, 의안처리 내용 (민주노동당 춘천 지구당 규약안, 사업계획 등)을 담고 있음.

## 나. 內 容 分 析

1) 민주노동당 춘천지구당 규약안(명칭, 목적, 당원, 대외기관, 집행기관, 회계감사, 재정, 보칙) 내용을 담고 있음.(3-8쪽)

규약안 내용에서 이념적 측면의 문제성 내용은 없음.

2) 춘천지구당 2002년 사업계획안(목표, 사업기조, 사업내용) 을 담고 있음.

(10-11쪽)

사업계획안 내용에서 이념적인 문제성 내용은 없음.

3) 춘천지구당 지방선거방침과 해설내용을 담고 있음.(13-15쪽)

내용 중 문제성 내용은 '양대선거 기조와 원칙'에 대한 해설에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민중 생존권 파탄의 실상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사업을 조직한다"라고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반정권 투쟁 사업 전개를 제기하는 내용임.

### 3. 總 評

본 문건에 담긴 내용 중 문제성 내용은 '양대선거 기조와 원칙'에 대한 해설(14쪽)에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민중 생존권 파탄의 실상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사업을 조직한다"라고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반정권 투쟁 사업 전개를 제기하는 내용임.

따라서, 본 문건은 반정부적 성향의 표현물로 판단 됨. 끝.

2002 年 6 月 7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3842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창당 그리고 자유를 위한 전진

나. 作 成 者 : 이원재외

다. 發 行 處(日) : 상동.2002. 5.7

##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서울 소식지 준비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2. 주사파(NL)의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및 반제반미투쟁과 동조하고, 또 PD파의 반미반전운동에 동조할 것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결국 국가보안법철폐, 반제반미투쟁, 반미반전운동을 역설하고 잇는 것이라 하겠음.

<예시>

NL동지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반제반미투쟁 등을--우리는 이런 투쟁에서 NL동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유지해야 한다(36쪽)

--PD동지들은 반미반전운동이나 -NL보다 상대적으로 열의를 갖고 있다. 이런 쟁점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36쪽)

3.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에 입각하여 사회를 2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예시>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분리는 계급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계급이나 민족이냐 하는 대립 구도에서 우리는 사회의 근본적 구분은 계급 분리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37쪽)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은 더 이상 창조하는 기쁨을 주지 못한다(76쪽).

3. 가정을 지배자들이 노동력을 재생산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각은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資本主義 家庭觀이라 하겠음.

<예시>

지배자들에게 가정의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가정이 노동력을 재생산해내고 노동계급에 대한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다(47쪽)

4. 아울러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창한 <공산당선언>을 적극 옹호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변혁적 힘을 역설하고 있음.

<예시>

노동자계급은 역사상 처음으로 착취당하는 다수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계급입니다(77쪽)

<<선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본주의와 노동계급의 변혁적 힘을 이해하는 데서 핵심 출발점이다(84쪽)

뒤이어 엥겔스는 “오늘날 <<선언>>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체 사회주의적 문헌 중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가장 국제적인 저작이며 시베리아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에게 승인 받고 있는 공통의 강령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역사는 재판관이다; 집행자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대담한 주장 또한 여전히 변함 없는 진실이다(84쪽)

###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서울 소식지 준비호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 주사파(NL)와 PD파가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철폐, 반제반미투쟁, 반미반전운동에 동조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3.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의 사회와 가정관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4.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창한 <공산당선언>을 적극 옹호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힘을 통한 노동자 민중이 정치세력화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5.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용공성 유인물로 사료된다.

2002 年 6 月 8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3934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2002년 민주노동당 2차 서울대 학생당원 총회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 (2002. 4. 17)

## 2. 分 析

## 1) 개요

0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에서 발행한 35쪽 분량의 유인물로서,

0 전반적인 내용이

- '2001년 서울대 학생위(준)의 활동보고와 평가', '규약개정안 인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 건설계획과 방향 심의'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 내용 분석

(1)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이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과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투쟁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 건설 목적 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예문 >

-서울대 학위(준)은 민주노동당의 학생부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학생부문 대표...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서울대 학생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쪽)

-새 세상을 꿈꾸는자만이 새 세상의 주인이 된다 자유로운 민중의 나라 노동자해방을 위해...민주노동당이여 이제는 전진이다. (3쪽)

(2) 지난 4개월 동안 서울대 학위(준)이 당원내부의 사상적, 조직적 통합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평가하면서, 이를 끈질긴 활동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현재 서울대 학위(준)의 4개월 간 활동보고와 평가를 진행하면서...아직 조직체계나 당원내부의 사상적 조직적 통합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사상적 조직적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끈질기게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14쪽)

(3)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위(준)"이 새로운 학생운동의 정형과 활동방식을 만들어 내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이제 민주노동당 학생당원은 학생대중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학생운동의 정형과 활동방식을 도출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대중운동의 실천 틀에 대한 합의를 하루빨리 도출하여 민주노동당 학생 대중운동의 정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각 대학별 학생위원회 건설...전국 학생위원회 건설...이를 통해서 대중운동을 발전시키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당원활동의 실제적 모습을 구현해가기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24-25쪽)

###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준)”이 자주, 민주, 통일 실현과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투쟁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학생운동의 정형과 활동방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방향 설정, 당원내부의 사상적, 조직적 문제점을 끈질긴 활동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입각하여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사회 건설 즉, 사회주의사회 건설 및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용공성향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건으로 분류된다. < 끝 >.

2002 年 7 月 6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3936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신자유주의 김대중정권에 대한 민중적 심판!...」

나. 作 成 者 : 불 명

다. 發 行 處(日) : 서울대 선거운동본부(2002. 6. )

## 2. 分 析

##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발행처가 발행한 유인물로써, 6.13 지방선거의 의의와 이에 대응하는 학생당원들의 결의와 선거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대체로 선거운동의 기조가 현정부에 대한 반대와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반정부적 성향을 지니는 수준임.

##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우선 '정세전망'부분에서 현정부의 지난 4년을 "민중 생존권을 담보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기"로 규정하고, 그 결과 "계속되는 민중 생존권 파탄"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1-2면), 그 대안으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4면).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반정부적 수준의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됨.

(2) 이밖에 본 문건에서는 선거운동본부의 목표로 현정권에 대한 민중적 심판과 사회적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나아가 미국반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반정부적 수준의 내용으로 판단됨.

###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선거운동본부가 발행한 유인물로써, 6.13 지방선거의 의의와 이에 대응하는 학생당원들의 결의와 선거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대체로 선거운동의 기초가 현정부에 대한 반대와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반정부적 성향을 지닌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2002 年 7 月 8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3937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노동당 공대당원 결의대회」

나. 作 成 者 : 불 명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서울대 선거운동본부(2002. 4. 17)

## 2. 分 析

##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발행처가 발행한 유인물로써, 6.13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학생당원들의 결의와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대체로 선거운동의 기초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반정부적 성향을 지니는 수준임.

##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우선 '간략한 기초 해설'부분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신자유주의 김대중 정권에 대한 민중적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공공성 강화"라는 의미에서 현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본 문건은 반정부적 성향을 지닌다고 판단됨.

(2) 이밖에 본 문건에서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면서 학내 선전선동과 모의투표 등을 통한 투표율 높이기 운동 등을 제안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좌익성을 지적하는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됨.

###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선거운동본부가 발행한 유인물로서, 6.13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학생당원들의 결의와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대체로 이번 선거를 신자유주의적 정권에 대한 민중적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반정부적 성향을 지닌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2002 年 7 月 8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4078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 노동자와 통일 6호 "

나. 作 成 者 :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다. 發 行 處 (日) : 민주노총 홈페이지 tongil.nodong.org ( 2002. 5. )

## 2. 分 析

## 가. 概 觀

본 문건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통일위원회에서 발행한 '노동자와 통일'이라는 제목의 소식지로서, 학살과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패퇴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투쟁'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현 정권에 대해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방하고, 나아가 현 대통령에 대해 광주혁명정신을 외면하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민중을 보호하지 않고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미국에 대해 아부와 굴종의 정치 행태를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問題內容 分析

1) 학살과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패퇴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투쟁'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된 반미자주화투쟁은 바로 북한의 대남투쟁 3대좌표 중 하나로서,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화투쟁과 같은 맥락이다.

“이제 학살 책임자인 미국에 대해 보다 분명한 ‘반미자주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광주에서 미국이 저지른 만행은 물론 통일의 훼방꾼이요, 해방이후 반세기 넘도록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학살과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비군범죄 등 무수한 죄과를 밝히고 이 땅에서 미국을 패퇴시키는 일에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1면 하단)

2) 현 정권에 대해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방하는 한편, 현 대통령에 대해 광주혁명정신을 외면하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민중을 보호하지 않고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미국에 대해 아부와 굴종의 정치행태를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정권을 친미파쇼정권, 사대매국정권, 반민중-반민주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 000 정권은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어 여전히 광주는 ... 000은 광주의 혁명정신을 외면하였다. 더 나아가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자국의 민중을 보호하기보다는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툭툭히 하고 있다. 또한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하고 ... 노동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등 정당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 집권기간 내내 적대적으로 탄압하면서도, 광주학살의 진짜 배후이며 주범인 미국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아부하고 굴종하는 정치 행태를 일관해왔다.”(1면 중단)

- 이 하 여 백 -

###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살과 전쟁채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패퇴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투쟁'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된 반미자주화투쟁은 바로 북한의 대남투쟁 3대좌표 중 하나로서,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화투쟁과 같은 맥락이다.
- 2) 현 정권에 대해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방하는 한편, 현 대통령에 대해 광주혁명정신을 외면하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민중을 보호하지 않고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미국에 대해 아부와 굴종의 정치행태를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정권을 친미파쇼정권, 사대매국정권, 반민중-반민주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본 문건은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화투쟁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현 정권과 대통령에 대해 친미파쇼정권, 사대매국정권, 반민중, 반노동자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 활동에 그대로 동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것을 선전하고 있으므로, '容共'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6 月 19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024226

## 1. 對 象

가. 文 件 名 : 열심히 버틴 당신 떠나라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 2. 分 析

가) 문건의 개요:

이 문건은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서 f-15기를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f-15 기종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음.

나) 내용 분석:

(1) 본 유인물에서는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사업에서 미국 보잉사의 F-15K를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음. 본 유인물에서는 동 기종 선정이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고, 동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음.

(2) 이 문건에서는 국방부의 F-15K 기종 선정이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그것이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하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국방부가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논지로서 현 정부를 비난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기종 선정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이러한 주장은 현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의 기종 선정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대미관계의 성격과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임.

### 3. 總 評

이 문건은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서 f-15기를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f-15 기종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본 문건의 내용은 현 정부의 대미관계의 성격과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을 비판하는 것으로서, 반정부적 문건으로 판단됨.

2002年 6 月 25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印)

02-5254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이랜드 점거농성 폭력 진압 규탄집회'에 다녀와서 "

나. 作 成 者 : 조승희

다. 發 行 處(日) : 열린주장과 대안 ( 불명 )

## 2. 分 析

## 가. 概 觀

본 문건은 조승희가 작성하여 「열린주장과 대안」에 기고한 '이랜드 점거 농성 폭력 진압 규탄 집회'라는 제목의 글로서, 이랜드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을 비방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랜드 노조파업과 관련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왜곡과 비방을 하고 있다.

## 나. 問題內容 分析

1) 이랜드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을 비방하고 있다.

"12월 8일 이랜드 노조 파업을 폭력 진압한 김대중의 경찰은 파업 기간 내내 이랜드 회사측의 경호견 노릇만을 해 왔다."(157쪽 하단)

2) 계속해서 이랜드 노조파업과 관련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왜곡과 비방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10월 30일에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성수 회장이 미국으로 도망가도록 놔두었다. 반면에 세 번에 걸친 노동자들의 아울렛 점거 농성에 대해서는 무참히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배재석 노조 위원장을 구속했다.”(157쪽 하단)

###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랜드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을 비방하고 있다.
- 2) 계속해서 이랜드 노조파업과 관련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왜곡과 비방을 하고 있다.

본 문건은 이랜드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일련의 진압조치를 거론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 왜곡과 비방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위와 같이 현 정부에 대한 왜곡과 비방을 하고 있는 범주의 문건이므로, ‘反政府’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8 月 16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